

1680 누르고 말하면 통화 콜 피엔유, 말로 가는 전화 'Say1680' 주목

말로 가는 전화 'Say 1680'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엔유는 지난해 4분기까지 공공기관 90만개가 Say 1680에 등록하면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피엔유가 제휴를 통해 선보인 Say 1680은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 1680을 누르고 상호와 이름, 별명, 브랜드명을 말하면 안내원 연결 없이 해당 연락처로 자동 통화 연결된다. 현재 공공기관 등록을 마치고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상업용 키워드 등록을 시작했다. 또 개인정보유출을 보호하는 전화번호 서비스로 개인키워드 등록도 개시했다. 아울러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Say 1680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102만개 업종별 키워드가 등록됐다.

이 뿐 아니라 114 서비스를 이용할 때처럼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없다. 음성 반응 인식을 오류 저하를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Say 1680은 사이트(www.say1680.com)를 통해 키워드 선 접수 우선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역동적인 '스포티지의 진화'

기아차, 후속모델 렌더링 이미지 첫 공개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출시될 스포티지 후속모델(프로젝트명 QL)의 렌더링 이미지(사진)를 17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후속모델의 디자인 키워드를 '스포티&파워풀 에너지'(Sporty & Powerful Energy)로 잡고 혁신적인 조형과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 대비 한층 강인하고 진보적인 SUV 스타일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스포티한 감성을 부각하는 차별화된 유선형 후드라인과 헤드램프를 라디에이터 그릴 보다 상단에 위치하게 해 새로운 역동적 비례감을 추구했다. 내장은 운전자를 향해 각도를 기울인 센터페시아로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또 스티어링휠-센터페시아-기어노브-사이드 에어벤트(송풍구)에 이르는 역동적인 선을 통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SUV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스포티지 후속 모델은 2010년 출시한 3세대 모델인 스포티지R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기아차만의 SUV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놀라운 상품성을 갖춰 하반기 최고의 기대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크라이슬러 200C 구매자 대상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FCA코리아는 중형 세단 크라이슬러 200C(사진) 모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프

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금융 프로모션을 통해 크라이슬러 200C를 구매하는 고객은 전수금 40%를 납부하면 36개월 동안 이자 비용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크라이슬러 200리미티드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초 등록 고객에 한하여 처음 구입 후 보유 기간 동안 평생 최고급 합성유 엔진오일 및 엔진오일 필터 교환 및 엔진 에어클리너 필터 교환, 에어컨 필터 교체 서비스를 차량 취급 유지 관리 스케줄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FCA코리아 고객이 크라이슬러 200C 및 200리미티드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2%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위메프, 엔엑스씨로부터 1000억원 투자 유치

쿠팡-티몬-위메프 '소셜커머스 삼국지'

소셜커머스 3사 모두 대규모 투자 유치 해외 R&D 강화 등 장기적인 전략 구축 출혈 마케팅 경쟁 재발 우려 분위기

소셜커머스 3사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새로운 경쟁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쿠팡과 티켓몬스터에 이어 위메프가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위메프는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사인 엔엑스씨로부터 제3차 배정 신주발행을 통해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소셜커머스 3사는 향후 각기 다른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 '향후 성장성 높게 봐'

위메프가 이번에 엔엑스씨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는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와 위메프 창업자인 허민 윌더홀딩스 대표의 인연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민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넥슨의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을 2008년 넥슨에 매각한 바 있다.

위메프에 앞서 쿠팡과 티몬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쿠팡의 경우 6월 손정의 회



잇달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국내 소셜커머스 3사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왼쪽부터)박은상 위메프 대표와 김범석 쿠팡 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스포츠동아DB**

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업계 최대 규모인 10억달러(1조1000억원)를 투자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티몬도 4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앵커캐피탈파트너스,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가 그루폰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면서 8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현재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수년째 과도한 출혈마케팅 경쟁으로 수익성이 매우 나빠진 상황. 지난해 기준으로 쿠팡은 1215억원, 티몬은 246억원, 위메프는 29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장기적으로 향후 성장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매년 고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120억원이던 국내 소셜커머스 거래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 전략 마련에 초점

업계에선 소셜커머스 3사 모두 대규모 투자에 성공하면서 또 다시 출혈 마케팅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3사는 쿠팡할인고 같은 단기적 마케팅 일변도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위메프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인재 영입과 시스템 개선 등을 가속화해 고객과 파트너사의 쇼핑 및 업무 경험을 개선할 계획이다. 위메프의 한 관계자는 "5년 정도된 벤처기업으로 인재 영입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타사와는 다른 장기적인 경영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정보기술(IT)력 향상을 위해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구개발(R&D)센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국단위 당일 직접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티몬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티몬은 '미사용 지역티켓 100% 자동환불제'와 '바로환불제', '무제한 배송지연 보상제', '티몬 멤버십' 등 경쟁력 차별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필품 시장 공략을 위해 '슈퍼마트'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텔레콤(왼쪽)과 KT 등 이동통신 3사가 20일 출시를 앞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의 사전체험 행사에 나섰다. **사진제공 | SK텔레콤·KT**



사진제공 | SK텔레콤·KT

"갤럭시노트5·S6엣지플러스, 미리 체험하세요"

이통3사, 사전체험 운영·출시 이벤트 진행

이동통신 3사가 20일 국내 출시하는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의 사전체험 행사를 17일부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전국 직영 대리점에서 사전체험존을 운영한다. KT도 전국 유토타 매장 중

321개 'S_ZONE' 매장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행사를 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강남역직영점을 시작으로 300여개 사전 전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시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KT는 사전체험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하면 총 601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노트5'와 '외식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등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25일까지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LTE비디오포털' 서비스 2만원 포인트를 제공한다.

한편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노트5와 엣지플러스는 5.7인치 퀵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1600만 고화소 후면 카메라, 더 빨라진 무무선 충전기술 등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주력(플래그십) 제품이다. **김명근 기자**

대형마트 '추석 선물 올리버드족' 잡아라

이마트·홈플러스 등 사전예약 개시

대형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올리버드족'을 잡기 위한 선물 사전예약을 일제히 시작했다.

먼저 이마트는 9월12일까지 예약판매한다. 174개 품목을 준비했다. 8대 카드 최대 30%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혜택을 넓혔다. 사육두수 감소로 최근 가격이 오른 한우는 직영 미트센터 사전비축으로 가격을 낮췄다. 인기품목인 '황성한우 갈비세트'와 '일반 한우

1++갈비세트'는 지난 추석과 같은 25만원에 판매한다. 8대 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 과일도 우수산지 선점을 통해 지난해보다 평균 10~20% 저렴하게 준비했다. 충남 아산 배와 경북 영주 사과로 구성된 '아산에 물들 썬 세트'(5만4800원)와 '아이리브 영주사과 세트'(4만9800원) 등으로 8대 카드로 구매 시 30% 할인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도 9월13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180여종을 사전예약 판매한다. 7대 행사카드

로 결제 시 최대 30% 할인해 주고, 행사카드로 동일상품 50만원 이상 구매 시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7대 카드로 결제할 경우 '프리미엄 명품 배세트'는 7만원에, '사과-배 혼합세트'는 5만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유기농 백화고&친환경 1++ 한우 냉장 구이 선물세트'는 59만원으로 웨밀리카드 소지 고객에게는 30% 할인한 41만3000원에 제공한다. '유기농 백화고&1++ 한우 냉동 갈비 선물세트'는 32만원으로 웨밀리카드 소지 고객에게는 40% 할인해 19만20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실

시한다. 롯데마트는 9월13일까지 총 106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7대 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 및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대표 품목으로 장수, 문경, 나주, 성환 등 유명산지의 '귀하게 자란 사과'와 '귀하게 자란 큰 배'를 각각 8만8000원에 판매한다. 또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자란 한우의 1+ 등급 갈비로 제작한 '자리산 진심한우 명품 갈비세트'를 10% 할인한 21만1500원에, '천일염 참굴비 세트 2호'를 30% 할인한 8만2600원에 선보인다. **김명근 기자**

애경, 온라인 선물세트 쇼핑몰 '마음가게' 오픈

생활취급기업 애경이 맞춤형 선물세트 온라인쇼핑몰 '마음가게'를 오픈했다.

마음가게는 명절이나 기념일, 돌잔치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선물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마음가게는 DIY(Do It Yourself)를 콘셉트로, 받는 사람의 취향과 선물의 의미를 고려한 맞춤형 선물이 가능하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그림이나 사진, 메시지를 디자인해 제품 패키지 또는 네태그(제품명에 걸려있는 POP)에 담을 수 있다.

마음가게의 구성품은 헤어크리닉 브랜드 케라시스 샴푸와 린스, 도탈바디케어 브랜드 사



워메이트 바디워시 등이다. 이밖에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담은 마릴린 먼로 선물세트 ▲국제 비영리조직 WIT(Whatever It Takes)와 함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WIT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아디다스, F/W시즌 모델 유승호 선정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는 이번 F/W시즌 아디다스 러닝의 '올트라부스트 캠페인'을 이끌 어갈 새 얼굴로 배우 유승호를 선정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유승호는 에너지 넘치는 러닝을 만들어줄 아디다스의 새로운 올트라부스트 러닝화를 착용하고 직접 달리기 느낌 경험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바이럴영상을 시작으로, 에너지 넘치는 매력이 담긴 화보공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유승호의 에너지 넘치는 러닝의 모습이 담긴 아디다스 '올트라부스트 캠페인'의 첫 번째 바이럴 영상은 유튜브채널 및 아디다스 공식온라인스토어 올트라부스트 기획전(shop.adidas.co.kr)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뉴발란스 'NB 조거수트' 출시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새로운 스타일의 'NB 조거수트'(Jogger suit·사진)를 출시했다. NB 조거수트는 뉴발란스가 최초로 제안하는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1968년 뉴발란스가 후원하던 미국 대학 육상팀의 유니폼에 스트리트 패션 무드를 더해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출시된 라인이다. 조깅을 위해 발목이 밴딩처리된 조거팬츠에 맨투맨 또는 후디를 같이 코디하여 입는 새로운 룩으로, 뉴발란스가 2015 F/W시즌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NB 조거수트의 가격은 6만9000원부터 13만9000원.

